

2019

발간년월 2019년 9월 주 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제1호

감 수 최재선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발행인 양창호 홈페이지 www.kmi.re.kr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 개발 연구

최일선 해양관광·문화연구실 전문연구원
(ilsunchoi@kmi.re.kr/051-797-4727)

홍장원 해양관광·문화연구실 부연구위원
(jwhong@kmi.re.kr/051-797-4721)

이정아 해양관광·문화연구실 전문연구원
(pengyou35@kmi.re.kr/051-797-4726)

해양관광의 경제적 파급력이 강조되면서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2018년 7월 제2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통해 지역 관광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밝히는데 이어 올해 5월에는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국내 해양관광은 대규모 해양관광단지 개발, 해양관광시설 확충, 해양 관광길 개발 사업 등 다양한 정책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정책 추진의 당위성을 판단하고 객관적으로 정책 효과를 예측할 수 있는 수단은 미흡한 상황이다. 지금까지 정책적 필요 차원에서 국내 해양관광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지표들이 개발되었지만 개별적·분절적으로 분석되어 결과의 활용성이나 정책적 성과는 크지 않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연구는 국내 해양관광의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수를 개발하여 지역별로, 해양관광 산업별로 해양관광 경쟁력지수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하여 향후 연안지역의 해양관광 육성 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적 근거 및 수단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해양관광 활성화 수준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양관광 목적지의 관광공급, 관광수요, 관리 및 운영·정책 등 내·외부적인 환경을 고려한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를 개발하였다.

이 지수를 개발하기 위해 선행연구 및 전문가 심층 인터뷰를 통해 초기 문항을 도출하였다. 또한 전문가들의 내용타당도 조사를 거쳐 지수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하고 지수화하기 위해 전문가 AHP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해양관광 공급지수, 해양관광 수요지수, 해양관광 정책역량지수로 구성된 3개의 대분류와 6개 중분류, 15개 소분류, 44개 세분류의 해양관광 경쟁력 지표를 개발하였다. 이를 이용해서 각 지자체별로 해양관광 분야별 산업의 경쟁력을 비교평가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활용방안 및 증장기 관리 체계를 제시하였다.

첫째, 해양관광 정책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이 지수의 증장기적 필요성과 활용가치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 측정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세부 지표에 대한 측정 자료의 확보 방안, 측정 시기, 측정 척도 등의 방법과 일련의 과정을 표준화해야 한다. 셋째, 해양관광 관련 기초자료 수집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 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조직하여 DB 구축 및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측정 지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빅데이터 분석, 네트워크 분석 등 다양한 방법론이 적용되어야 한다. 넷째, 초기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가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지수의 수정·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향후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의 지속적인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에서 행정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해양관광진흥기본 계획을 활용하거나, 해수욕장법, 마리나 법, 수중레저법 등 해양관광 관련 개별법에 들어 있는 통계 구축 관련 조항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해양관광 경쟁력 평가를 위한 지표 및 지수 개발 필요

■ 해양관광의 경제적 파급력이 강조되면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 해양관광이 연안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정부 차원의 인프라 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2019년 5월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대책을 발표함
 - 정부는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 해양 관광길 개발 등 인프라 및 콘텐츠 확대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 지자체 차원에서도 대규모 해양관광단지 개발, 해양문화시설 확충, 해양레저관광 관련 인프라 확충 등 다수 사업이 진행 중임

■ 해양관광 활성화 정책성과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나 근거 미흡

- 해양관광이 활성화됨에 따라 지역 간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정책성과를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유명 관광지에는 관광객의 집중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문제가 발생하는 반면 인지도가 낮은 소규모 관광지는 관광개발 미흡과 편의시설 부족으로 인해 더욱 낙후되는 악순환이 나타남
 -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해양관광 관련 정책의 효과를 예측하고, 정책 추진의 당위성을 판단할 수 있는 수단이 미흡한 실정임
 - 정책적 필요에서 해양관광 지표들이 개발되었지만 개별적·분절적으로 분석되어 결과의 활용성과 정책적 성과가 낮음
- 관광 부문은 지역의 관광 경쟁력을 측정하고 지역관광정책 평가 및 정책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지수개발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 그러나 지역관광발전지수의 지표체계에는 해양관광 경쟁력을 설명할 수 있는 지표가 포함되지 않아 해양관광 경쟁력을 평가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해양관광의 특성을 반영한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 개발 추진

■ 각국은 지표를 통해 국가 및 지역의 상태를 진단하고 정책 추진의 근거로 활용함

- 지수는 사회, 경제, 정체 등과 관련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시계열적으로 혹은 지역 간 비교를 위하여 어느 한 시점이나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 가능한 값으로 환산하여 표준화한 값을 의미함

- 지수는 다양하게 개발된 지표의 항목을 합산하고 수치화하여 종합적인 상황을 알려주며, 이를 통하여 국민이나 정책입안자들에게 현재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 지수를 근거로 현재의 가치와 목표에 비춰 현재의 위치와 미래의 방향을 판단함
- OECD는 Handbook on constructing composite indicator를 통해 체계적인 복합지수 개발을 위한 방법론 및 이용자 가이드를 제시함

■ 관광 경쟁력은 공급 및 수요, 정책, 관리 등 내·외부적 환경을 통합적으로 평가

- 국가 경쟁력 및 관광 경쟁력에 대한 선행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학자에 따라 관광 경쟁력의 정의를 다양하게 제시함
 - Butler(1990)는 관광 경쟁력을 관광목적지 상품수명주기를 지속 연장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했으며, 심원섭(2004)은 지역의 관광생산성을 지속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지역의 총체적 능력으로 정의함
- 관광목적지의 경쟁력은 관광공급과 운영전략의 효율적인 관리 측면과 관광지를 둘러싸고 있는 내·외부 환경을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해양관광 경쟁력이란 해양관광 생산성을 달성하는 해양관광지의 총체적 능력

- 내륙관광과 구별되는 해양관광의 4대 특성은 계절성, 경제성, 접근성, 안전성임
 - 해양관광은 하계 휴가철인 7월과 8월에 집중되며(계절성), 내륙관광에 비해 소요되는 비용 수준이 높음(경제성). 또한 해양관광지는 내륙에 비해 이동거리가 길며 대중교통을 통한 접근성이 낮음(접근성), 아울러 파도, 해일, 조류 등 극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함(안전성)
 -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 개발을 위해서는 해양관광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양관광 경쟁력에 대해 개념화하는 단계가 선행되어야 함
- 해양관광 경쟁력은 해양관광의 특성과 함께 해양관광지의 공급, 수요, 운영, 관리, 정책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함
-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는 해양관광 경쟁력을 바탕으로 개발된 지표의 항목을 합산하고, 수치화하여 해양관광지 간의 비교 가능한 값으로 환산하여 표준화된 값을 제공하는 것임

■ **선행연구 및 국내외 관광 경쟁력 지수 사례 검토를 통한 해양관광 경쟁력 지표 체계 도출**

- 섬 관광목적지, 도시, 해양관광지, 농촌관광지 등을 대상으로 관광 경쟁력 지표를 개발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해양관광 경쟁력 지표 체계 개발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함
-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관광발전지수 지표체계’와 한국관광공사의 ‘관광 수용태세 경쟁력지수’,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관광경쟁력지수(Travel & Tourism Competitiveness Index, TTCI), OECD의 관광경쟁력지표 등 국내외 관광 경쟁력 지수의 체계 및 평가 방법에 대해 검토하였음

해양관광 경쟁력 지표 체계 구축 및 지표 선정 방안 제시

■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 개발 목표 설정 및 3단계 지표 개발 절차 추진**

-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는 해양관광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반영하고, 해양관광지의 공급, 수요, 운영, 관리, 정책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개발한 지표를 바탕으로 해양관광지 간의 비교 가능한 값으로 환산하여 제공함
- 지표 개발 절차는 선행연구 분석 및 이해관계자 인터뷰 등을 바탕으로 초기문항을 도출한 후, 전문가 1차 조사로 표면타당성 및 내용타당성을 확보하고, 전문가 2차 AHP 조사를 통해 지표별 중요도에 대한 가중치를 산정하여 평가체계를 마련함

■ **3개 대분류, 6개 중분류, 16개 소분류, 44개 세부지표로 구성된 해양관광 경쟁력 지표 개발**

- 1, 2차 전문가 조사를 통해 44개의 지표와 지표별 가중치를 도출함
- 이 지표는 1) 해양관광 공급지수, 2) 해양관광 수요지수, 3) 해양관광 정책역량 지수 등 3개 대분류로 구성하여 각 지수를 별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임

표 1.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 세부지표별 배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배점	세부지표	배점	
해양 관광 공급 지수 (27.3점)	해양 관광 매력물 (17.5점)	자연 자원	8.5점	해수욕장 수	3.0점	
				해안둘레길(해파랑길, 해안누리길 등) 길이	3.1점	
				해양보호구역(해양생태계, 해양생물, 습지, 해양경관보호구역) 수	2.4점	
		문화 자원	4.4점	지역축제 수	1.2점	
				문화재 수	0.5점	
				어촌체험마을 수	1.4점	
	개방 등대 수			0.5점		
					박물관(전시/관람관) 수	0.8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배점	세부지표	배점
	해양 관광 수용력 (9.8점)	관광지 및 관광단지	4.6점	관광지 지정 개소 수	2.1점
				관광단지 지정 개소 수	2.6점
		숙박 시설	2.1점	관광숙박업 객실 수	1.5점
				어촌민박 수	0.6점
		교통 시설	2.2점	대중교통 접근성(광역 버스, 열차, 항공, 선박 등 운항횟수)	1.8점
				시티투어버스 운영 유무	0.4점
		해양 레저 스포츠 시설	3.4점	낚시어선 수	0.2점
				수상레저사업장 수	1.0점
				수중레저사업장 수	0.6점
				마리나 계류 선석 수	0.6점
		안전 및 정보	2.1점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수	1.0점
				해양관광 안전사고 발생건수	1.0점
				해양경찰 수	0.6점
				관광안내소 수	0.5점
해양 관광 수요 지수 (34.5점)	해양 관광 평가 (19점)	관광객 수	3.8점	주요지점 관광객 수	0.7점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참여자 수	0.9점
				어촌체험마을 참여자 수	0.8점
				해수욕장 이용객 수	0.7점
				낚시어선 이용객 수	0.3점
				해양 관련 박물관/전시관 이용객 수	0.4점
		관광 만족도	9.4점	해양관광 만족도	3.1점
				재방문 의향	3.1점
				타인추천의사	3.1점
				관광 소비액	5.8점
	지역 경제 효과 (15.5점)	관광 소득 창출	12.8점	주요 해양관광시설(어촌체험마을, 어촌관광휴양단지, 해양레저체험교실) 매출액	6.5점
				연안지역 관광사업체 수	2.6점
				연안지역 관광사업체 매출액	3.7점
		관광 기간	2.7점	주요지점 관광객 수 성수기 비율(계절성)	2.7점
해양 관광 정책 역량 지수 (38.2점)	인력 양성 (24.2점)	주민역량강화	18.9점	지역주민 관광 관련 프로그램 이수비율	12.0점
				관광 관련 인력 양성 프로그램 수	6.8점
		주민인력 규모	5.3점	바다 해설사 수	2.4점
				지역주민 경제활동 인구 수	3.0점
	관광 행정 (14.0점)	관광정책 인력/예산	9.0점	해양관광 관련 공무원 비율	2.3점
				해양관광 부문 예산 비율	6.7점
		관광 정책	4.9점	해양관광 담당 전문 부서 유무	2.5점
				해양관광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	2.4점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 활용 방안 및 중장기 관리 체계 제시

■ 해양관광 정책의 목표 및 방향 설정과 성과 평가 수단으로 활용 가능

- 해양관광 공급지수는 지역의 해양관광자원에 대한 유형화 및 해양관광기반시설의 정비방향과 규모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함
- 해양관광 수요지수는 해양관광정책의 성과를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하고, 해양관광 공급지수와 연계시켜 시설계획의 보완 및 성과를 점검하는 수단으로 활용함
- 해양관광 정책역량지수는 연안지역 해양관광정책사업의 집행력을 점검하고, 이를 제고·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함

■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의 관리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측정지침 마련 필요

-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의 활용도 검토를 위하여 행정기관에 세부 지표의 중장기적 필요성과 활용가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의 측정지침은 세부 지표에 대한 측정 자료의 확보방안, 측정시기, 측정 척도 등 방법과 과정 등을 표준화해야 함
- 해양관광 관련 기초자료 수집전략 마련과 함께 DB 구축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체계 구축, 지수 발굴을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 및 세부지표의 모니터링과 보정, 해양관광 경쟁력지수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이 필요함